

재배상잡

개량종 백출재배 전망 '궁금'

토백출과 수량성·성분차이는 약리효과 토백출과 차이 없어 수량성은 확신할 수 없는 단계

문 전남 완도군 약산면에서 약초재배를 하는 농민입니다. 유희지를 활용하여 재배할만한 품목이 없을까 궁리하던 차에 개량종 백출재배를 권유받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토백출과 비교해 볼때 수량성이나 성분상의 차이는 있는지요. 또 개량종 백출종자를 개당 80~100원에 공급받았을때 수익성은 맞는지, 판로와 재배전망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송원섭
전남 완도군 약산면)

japonica koidzumi(삼주), 중국은 A.ovata를 이용하여 한국·중국·일본에서 각각 다른 식물을 백출이라는 생약명으로 사용하여 왔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큰 꽃삼주'가 일부 수입되어 개량종 백출이라는 명칭으로 재배되고 있으며 국내에 자생되는 '삼주'와 개량종 백출이라는 '큰 꽃삼주'는 식물의 형태도 차이가 있습니다.

<토백출과 비교해 수량성 차이>

수량성은 '삼주'의 경우 종자 파종 후 뿌리가 비대하여 약재로 이용할 수 있

는 기간이 3년 이상이 소요되나 큰꽃삼주는 직파재배를 한 당년에 주당 생근중은 20g정도, 3백평당 생근 수량은 6백Kg정도로 본 밭에서 2년생 이상 재배하면 보다 나은 수량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토백출과 비교해 성분상의 차이>
'삼주'와 '큰꽃삼주'의 약리효과 및 성분을 비교한

Ⅲ)에서 차이가 없었으므로 약재로 이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며 공정서인 대한약전에도 백출의 기원식물로 기재되었습니다. 문제는 공인연구기관에서는 현재 재배기술을 연구중에 있으며 육묘이식재배나 직파재배시의 수량성을 확신할 수 없는 단계이며 생육초기부터 발생하는 병해에 대한 예방이나 방제방법이 개발되지 못하였으므로 특별히 재배

판로확보와 수익성은 맞는지 시세가변적, 수익성 예측곤란

결과 유리산 억제 정도, 총산도, 위벽의 산분비량 등과 약효성분인 베타 유데스몰(B-eudesmol) 아트락티레노라이드Ⅲ(atractylenolide

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 경험으로는 육묘이식 재배시 병해 발생이 더욱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당 80~100원에 종자공급받을 경우>
제시된 묘의 가격으로는 생산비 부담이 크편이며 약재의 시세도 가변적이므로 수익성 예측은 곤란합니다. 신문지상 등에 광고되는 내용으로 보아서는 계약조건을 명확히 한 후 즉, 재배 기술 지도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를 확실히 한 후 재배에 임하시되 가급적 경험 없는 경우는 소면적 재배를 권장하고 싶습니다.
<성낙술 박사
농진청 작시 특용작물과>

재배기술 상담 받습니다

평소 생약재배현장에서 부딪치는 기술상의 문제점이나 궁금한 생약정보를 전화나 팩스로 문의하시면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어 답을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보내실곳=서울시 동대문구 제기2동 1140-55 대산 B/D 301호 한국생약협회 편집부 (우편번호 130-062)
▲전화번호 02-967-8133
▲팩스 02-965-0643

답 백출의 식물이름은 '삼주'라하며 우리나라에서는 Atracylodes

신품종 '청양구기자' 개발 충남농진청, 다수확 탄저병 등 강해

기존 품종보다 병해충에 강하고 수확량도 많은 신품종 '청양구기자' (계통명 청양1호)가 탄생, 구기자 재배농가에 희소식이 되고 있다. 청양구기자시험장 육종연구팀(팀장 이봉춘)이 10년의 노력끝에 개발에 성공, '97 농작물 우량품종 심의회'에서 품종명을

지정받은 <청양구기자>는 전국에서 재배되는 재래종을 수집, 선발한 유성2호 계통의 꺾꽂이순에 지난 92년 방사선 동위원소 처리를 해 2년동안 계통선발 과정을 거쳐 만들어낸 것으로 수확량이 많고 병해충에 특히 강한 것이 특징이다.

땅두릅 연중 재배법 개발 완주지도소, 단경기출하 식량증대효과

전북 완주군 농촌지도소가 땅두릅의 연중생산이 가능한 새로운 재배기술을 개발, 농가소득향상이 기대되고 있다. 시험재배 결과 태양열 지중난방을 이용한 축성재배의 경우 11월중 종근을 심고 휴면타파를 시킨 후 12월중 가운을 시작한 지 27일 정도 지난 뒤부터 땅두릅을 생산할 수 있었으며 저온저장에 의

한 억제재배는 3~4년된 땅두릅의 뿌리를 캐 저온저장고에 보관했다가 원하는 생산시기로 부터 20~30일전 재배상에서 연화재배하는것. 완주지도소 관계자는 이러한 시설재배로 단경기 출하는 물론 수확량 증대효과도 가능해 농가 소득 증대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IMF체제 경제위기가 우리 농촌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생약재의 상품화 시도를 통해 당연한 위기를 헤쳐 나가고자 하는 한 농업공동체가 있어 화제다. 서산양잠농업협동조합(조합장, 장성욱)은 최근 당뇨병 혈당강하제로 각광받고 있는 누에의 고부가가치제를 위해 '황잠(皇蠶)'이라는 브랜드로 이달부터 상품화 할 예정이다. 누에는 지난 95년 3월 국립잠사곤충연구소와 경희대 약대 공동연구에 의해 '누에건조분말이 당뇨병 혈당강하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발표된 후 새

■ IMF시대 경쟁력을 키운다 / 서산잠협



'황잠' 브랜드로 차별화 시도

로운 당뇨병 치료제로 주목받아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제품이 분말상태 그대로 판매되거나 환(丸)의 형태로 제조된 관계로 상품성이 열악하다는 지적이 따라 왔었다. 또 냉장고에 보관하더라도 1개월 정도만 지나면 변질되어 소비확대에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기존의 누에가루가 지닌 단점들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자 지난 97년 초부터 작업에 착수한 서산잠협은 최근 누에가루를 멸균처리한 뒤 정제화함으로써 상품화하기에 이른것. 이번에 개발된 '황잠(皇蠶)'(누에가루정제)은 기존 분말과는 달리 100% 순수분말을 사용하면서도 상온상태에서 1년 이상 보관이 가능하고 약효가 뛰어난데다 휴대 및 복용도 편리하다는게 장점이다. 서산잠협은 또 누에가루 브랜드 도입과 소량유통방

식 채택을 통해 차별화 전략을 시도하고 있다. 이는 최고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초저온 냉동고(deep freezer)에서 완제품이 아닌 누에상태로 보관했다가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소량씩 정제화하여 유통시키도록 함으로써 제품의 신선도를 극대화하는 방식이다. 이와관련 장성욱 조합장을 「가짜와 수입품이 범람하는 가운데 우리 잠협이 농사지어 손수 만든 제품이 정말로 제대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릴 방법을 고민한 끝에 브랜드를 붙이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현재 서산잠협은 정제화 제품에 한해 타블렛화 공정의 일부를 향남공단에 소재한 한 제약사에 위탁생산하고, 포장·가공과정 등 모든 공정을 자체내에서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02)594-2881